



빨간줄그으며 동화 읽는 남자

# 이지호

**《동화의 힘, 비평의 힘》 낸 동화평론가 이지호**

서글서글한 인상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강해서인지 동화평론가인 이지호(44) 씨는 집에서 양쪽 무릎에 아이들을 앉히고 동화를 읽어줄 것 같이 자상해 보인다. 아이의 눈을 번갈아 마주쳐주며 목소리는 동화 주인공에 따라 바뀌고, 예측 못한 아이들의 물음에도 좋게 대답해 줄 것 같다. 기자가 당연히 그렇지 아니하냐 물으니 그는 손사래부터 친다.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하려는 여자가 있다면 도시락을 싸 들고 다니며 말리겠다’는 아내의 말을 빌려, 스스로 가정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단언한다.

그런 그가 이번에 낸 《동화의 힘, 비평의 힘》은 좀 다르다. 편집주간 자리를 맡고 있는 월간 〈어린이문학〉에 2년여 동안 발표했던 글을 묶어 놓은 책으로, 동화를 두루 살핀 후에야 아이 손에 쥐어 주는, 헌신적인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다.

사실 이씨에게는 어린이를 위한 제대로 된 동화가 없는 현실이 가장 안타깝다.

“어린이다운 어린이의 모습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동화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아예 문학성이랑 거리가 먼 것도 많습니다. 이 책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경고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기존의 동화들을 놓고 단어, 문장, 띄어쓰기까지 비평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먼저, 작품의 완전한 소화를 위해 최소한 너댓 번의 정독은 필수다. 문제가 있는 문장을 일부러 찾아내려는 건 아니지만 뭔가에 걸린 듯 더 이상 읽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문법에

에 맞지 않는 문장과 부정확한 표현 때문이다. 이러한 실수는 대개 잘못된 발상이 원인이다. 비평을 하기 위해서지만 그런 동화를 읽는 것은 괴롭다.

“비평이 가진 역할 중에 하나는 작품의 잘못된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곧, 작가에게는 더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도록 하고, 독자에게는 그러한 작품을 읽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지요. 이처럼 비평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객관성과 합리성을 빼놓을 수 없어요. 하지만 비평이라고 완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평에 대한 비평도 필요합니다.”

이번 책에서 비평 대상이 된 동화는 그 이력이 만만치 않다. 오랜 경륜을 가진 신춘문에 당선 동화도 있고,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환상동화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작품도 있고, 미국의 권위 있는 어린이문학상인 뉴베리상 수상작도 있다. 문학성의 부재 여부와, 주제에 들어맞지 않는 논리와 서사문법을 중심으로 작품에 이의를 제기했다.

흔한 비유로, 창작을 산고의 고통에 빗대기도 한다. 그만한 노력과 아픔을 수반한다는 뜻인데 요즘에는 이러한 내면을 가진 작품이 많지 않다는 것에 그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는다. <어린이문학>의 ‘이달의 동화’에 투고된 작품을 봐도 뻔히 알고 있는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틀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침착하게 읽어 내려가지 않아서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실수가 없으란 법은 없다. 문제는 실수보다 작가의 태도에 있다.

“해방 전에는 소설 쓰는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만이 동화를 썼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문장 하나 제대로 못 쓰면서도 동화를 쓰겠다고 합니다. 어린이를 알아보고 문학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창작은 비평보다 어렵고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준비작업도 철저히 해야 하구요. 이렇게 귀중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안이합니다.”

어린이는 동화의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인다. 모호한 내용과 사실적이지 않은 사건 전개 등이 난무한 동화가 읽히는 현실이다. 그는 이것저것 재가며 말할 여유가 없었다. 작품성을 중심으로 한 직설적인 비평을 감행했다. “수상까지 한 작품을 놓고 너무나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독자가 있을 수도 있다. 비평의 본질을 모르고 염려한 까닭이다. 분명한 것은 작가의 역량부족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자체에 의미를 두어 결과적으로는 동화를 읽는 주체인 어린이를 위협에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랄하고 언성 높은 비평이 불가피하다.

“《동화의 힘, 비평의 힘》에 모은 글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이 더러 있습니다. 솔직한 표현이 아니라 지나친 표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글이 아니더라도 그 뜻이 전달되는 것을, 굳이 글로 나타내는 바람에 왜곡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저의 글쓰기가 미숙하다는 증거지요.”

이지호 씨는 박사과정을 밟을 때만 해도 성인문학을 공부했다. 어린이문학은 대학에서 강의를 맡게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됐다. 이후 어린이문학과 관련한 논문과 평론 쓰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겸손함은 그가 가진 동화의 위치가 높다는 의미다. 그는 동화를 쓰기 위해서 먼저 아이들의 글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화가 소설보다 쓰기 힘든 것도 이런 이유다.

평일 오후, 시내 서점에 가면 복잡한 가운데서도 함께 동화를 읽는 엄마와 아이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잠깐 옆에서 자리를 한 동안에도 아이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책을 읽는 아이는 궁금한 게 많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고 싶다면 엄마들이 먼저 책을 읽어야 합니다. 질보다 양에 목적을 두는 엄마들은 이렇게 못할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책을 읽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많아요. 책을 안 읽는 것도 문제지만, 책만 읽는 것은 더 문젠데요. 아이들이 놀다 지치거나, 노는 것도 심드렁해질 때 책을 권해 주세요. 책을 읽는 것도 즐거운 놀이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직접 고르는 작업이 어려우면 서평, 곧 ‘책에 관한 책’에서 찾는 것도 좋아요. 단지 참고만 해야 합니다. 책을 읽으면 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동화는 어린이를 위한 책이 분명하지만, 어린이만 읽는 책은 아니다. 그래서 적당한 교훈과 적당한 재미만 있어서도 안 된다. 어른도 쉽게 눈치채지 못하는 교훈이 이야기 속에 교묘히 감추어져 있어야 한다. 세대를 초월해 공통적으로 느끼는 교훈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동화여야 한다. 이런 동화가 이 땅 모든 아이들의 손에 쥐어질 때까지 동화의 ‘힘’을 키우는 그의 강도 높은 ‘힘’은 계속된다. **✎**

취재 홍이현 기자



《동화의 힘, 비평의 힘》  
이지호 지음 | 주니어김영사 | 344쪽 | 값 16,500원